

한국유리, PDP유리 시장 진출

일본 Central Glass 등과 합작으로 ... 2006년경 생산 예정

국내 Display 시장 성장에 발맞춰 판유리 제조기업인 한국유리가 PDP(Plasma Display Panel)용 유리사업에 진출한다고 4월19일 공시했다.

한국유리는 지속적으로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는 평면 TV패널용 유리시장으로 사업부문을 확대할 방침 아래 글로벌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유리가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일본 Central Glass(40%)와 Saint-Gocain(30%)이 투자해 Display Glass Alliance를 설립할 예정이다.

3사 모두 유리산업에 대한 각각의 역량과 노하우를 결집시켜 기술적·재정적·상업적 성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산설비는 한국에 건설하며 2006년 초 생산을 본격화될 계획이다. <주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5/04/21>